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전북 지역 사례

박 재 규**

Key words: 국제결혼 이주여성(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농촌생활 적응(adaptation to rural life), 일상생활(daily lives), 지원정책(assistance polic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ich factors are the most important to the rural life conditions of female migrants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to suggest some support ways for their adaptation in Korea. In order to complete these works this study used the data o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residing in rural communities of Jeonbuk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by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From the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rural l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re considerably different by their nationality, family economic conditions, husband's personal information,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amily support for their participation in outside meetings and education, the conditions of their current work, and husband's share of houseworks. Given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ome assistance policies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 | | |
|------------------------|------------|
| 1. 서 론 | 3. 자료 분석 |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와 적응과정 | 4. 요약 및 결론 |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 사회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가정, 특히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먼저 국제결혼의 경우 2000년 12,319건에서 2005년 43,121건으로 증가하여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50%씩 증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국제결혼의 국내결혼 비율 증가로 이어졌는데, 예를 들면, 2003년 8.4%(25,658/304,932)

* 본 논문은 2006년 춘계 농촌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으로 당시 유익한 논평을 주신 토론자 선생님과 농촌경제 논평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에서 2005년 13.4%(321,550)를 차지하여 한국인 100명 가운데 13명이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20년 한국 사회 국제결혼 비율은 32%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2005년 이미 35.9%까지 증가하였고, 일부 지역은(충북 46.3%, 경북 43.6%, 전북 42.3%, 충남 41.4% 등) 40%를 넘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곧 국제결혼이 농촌 지역에서 지배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6).¹

한국 사회 국제결혼이 이처럼 급증하는 주요 원인은 한국 사회의 국제화와 함께 한국 사회 지역간 성비의 불균형, 그리고 결혼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다(박재규 2005). 즉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의 개방화 및 국제화는 한국인의 국제사회 진출과 국내 노동시장 개방에 따라 제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녀 간의 만남이 국제결혼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요인은 농촌지역 남성이나 도시 빈민지역 남성의 경우 지역사회 혹은 국내에서 더 이상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결혼 적령기를 넘기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국제

결혼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국제결혼에서도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² 예를 들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 사례가 75,988건으로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 사례 28,238건에 비해 2.69배 많았고, 2005년에도 전자가 후자보다 2.61배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06).

한국 사회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은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비의 불균형과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 간 성비 불균형, 그리고 한국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경제의 저발전과 여성의 도시 이동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2004년 20대와 30대의 성비가 각각 119와 129로 도시지역 성비 110에 비해 매우 높고, 일부 농촌지역은 130부터 최고 1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전라북도 2006). 이런 결과는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문제가 농촌 지역사회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며, 그 탈출구로서 도시지역 여성과의 결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여

¹ 국제결혼의 증가는 또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혼혈인구) 증가로 이어져 한국 사회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당시 국제결혼 자녀는 약 25,426명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 그 수가 167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통계청 2006; 중앙일보 2006).

² 국제결혼의 여성화란 이주 과정에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주의 여성화'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이주의 여성화란 국가 간 노동이동에서 50% 이상을 여성 이주자가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내포하며, 또한 여성이 남편을 따라서 이동하기보다는 여성 스스로가 추체적인 노동자로 이주하는 취업노동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혜경 2005).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국제결혼의 여성화'라고 표현하였다.

성은 농촌남성과의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왜냐하면 농촌의 저발전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여성농업인의 힘든 생활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 때문에 도시여성은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을, 혹은 배우자로서 농촌남성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박재규 2003). 이처럼 농촌남성의 결혼문제가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하자 그 대안으로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고려하게 되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노총각의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있다(경북매일신문 2005).³

이처럼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 함의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농촌지역의 경우 새로운 정주인구 유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동력원 확보 차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은 여성의 개인생활을 비롯하여 가족생활, 지역사회 안정화, 그리고 국가의 이미지 홍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에 대한 파악과 국내 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진한 편이다.⁴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정착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만족상태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론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2005년 8-9월에 거쳐 수집한 것이다. 즉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적응과정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내 정착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농촌지역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지역에서 농촌지역(읍·면)으로 제한시켰고, 조사 대상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거주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무작위 표집하였고, 질문지를 이용하여 이주여성과의 면접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내용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내용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생활, 일반적 생활, 그리고 이웃 관계 내용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16개 문항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표 1>과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내용을 부부생활(6), 일상생활(6), 그리고 이웃관계(4) 등 3개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지원을 위한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여성가족부 2006).

³ 담양군 경우 2003년에 필리핀 카멜링사와 협약을 추진하여 군내의 농촌 총각들과 필리핀 여성들 간의 결혼을 추진하였고, 나주시도 '농촌 총각 국제결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한국염 2004).

⁴ 최근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외교문제로 비화되면서, 이주여성의 국내적응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면서 국내 실태 파악과

표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구성 내용, 요인 분석, 그리고 신뢰도

농촌생활 구성 내용	부부생활	일상생활	이웃관계
남편의 믿음과 이해 정도	.841	.110	.079
부부의 친밀감	.915	.114	.033
부부의 대화	.866	.169	.055
부부의 성생활	.864	.118	.045
부부의 여가생활	.782	.257	.029
부부 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	.832	.279	.075
농촌지역 거주에 대한 만족	.045	.791	.082
현재의 주택(주거)환경	.127	.851	.023
육체적 건강 상태	.141	.821	-.011
심리적 안정 상태	.287	.832	-.014
소비생활	.233	.855	.048
한국에서 전반적인 생활만족	.209	.852	.054
이웃 경조사에 서로 돕기	.125	.002	.757
이웃과의 생활필수품 교환	.057	-.013	.840
이웃과의 금전 거래	.016	.037	.828
이웃과의 어려운 문제 논의	.032	.084	.810
고유치(Eigenvalues)	6.354	3.171	2.709
설명 분산(%)	26.96	25.85	19.16
신뢰도(Cronbach's Alpha)	.925	.935	.862

이 연구는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주요 변수로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국내 거주기간, 국적, 학력, 연령, 경제생활수준), 결혼 및 입국준비(결혼 이유, 남편의 정보 정확성, 입국당시 한글 이해), 가족의 지원(외부 교육 및 모임참여, 본국 가족에 대한 물질적 지원), 그리고 노동과 가사노동(노동시간 및 가사노동시간, 일의 힘든 정도,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등을 사용하였다.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와 적응 과정

2.1. 한국 사회 국제결혼 증가와 원인

국제결혼의 역사가 국제사회 노동력 이동과정과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결혼 그 배후에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와 국제결혼에 참여하는 양국 사이의 사회-경제적 연관성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결혼에서 여성화가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그 또한 세계 자본주의체제에서 국가 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현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통합되면서 자본과 상품, 그리고 사람도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력의 이동은 경제적 낙후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 간 노

동력 이동에 남녀 모두가 참여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nt workers)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Castle and Miller 1998; Kofman 1999),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여성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이해경 2005).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은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 흐름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반전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즉 한국 사회 국제결혼은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에 진입하여 주둔하게 된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

미군기지촌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발생하였고, 1980년대 통일교가 국제결혼을 교단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노동시장의 국제화와 이주노동자의 국내유입은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의 증가로 이어졌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촌지역의 노총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농촌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국제결혼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표 2>에 의하면, 지난 15년(1991-2005) 동안 한국인 236,045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고, 그 중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67.5%로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32.5%(76,722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에서 발견되

표 2. 한국 사회 국제결혼 추이, 1991-2005

단위: 명

구분 년도	한국남자 + 외국여자					한국여자 + 외국남자				
	합 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합 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1991	663	224	106	232	101	4,349	2,297	156	1,680	216
1992	2,057	1,223	429	249	156	3,477	1,747	137	1,335	258
1993	3,109	826	1,851	230	202	3,436	1,818	185	1,127	306
1994	3,072	561	2,043	227	241	3,544	1,978	141	1,109	316
1995	10,365	1,412	8,450	188	315	3,129	1,751	207	891	280
1996	12,647	2,370	9,271	228	778	3,299	1,789	191	965	354
1997	9,266	1,075	7,362	213	616	3,182	1,670	151	902	459
1998	8,054	1,004	4,688	1,514	848	4,134	1,818	514	981	821
1999	5,775	1,248	2,883	280	1,364	4,795	2,649	234	1,190	722
2000	7,304	1,131	3,586	235	2,352	5,015	2,941	218	1,095	761
2001	10,006	976	7,001	265	1,764	5,228	3,011	222	1,132	863
2002	11,017	959	7,041	267	2,750	4,896	2,377	272	1,210	1,037
2003	19,214	1,242	13,373	323	4,276 ¹⁾	6,444	2,613	1,199	1,237	1,395
2004	25,594	2,462	18,527	344	4,261 ²⁾	9,853	3,378	3,621	1,348	1,506
2005	31,180	1,255	20,635	285	9,005 ³⁾	11,941	3,672	5,042	1,413	1,814
합 계	159,323	17,968	107,246	5,080	29,029	76,722	35,509	12,490	17,615	11,108

주: 1) 베트남 1,403, 필리핀 944, 태국 346, 우즈베키스탄 329, 몽골 318, 러시아 297, 기타 639

2) 베트남 2,462, 필리핀 964, 몽골 504, 태국 326, 러시아 318, 우즈베키스탄 247, 기타 678

3) 베트남 5,822, 필리핀 997, 몽골 561, 태국 270, 러시아 236, 기타 1,119

자료: 박재규(2005); 통계청(2006)

는 중요한 특성은 과거 일본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여성이, 2000년 이후에는 베트남과 태국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중국 여성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여성이 선택하는 결혼 배우자로서 외국 남성은 일본이나 미국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다가 최근 중국 국적의 남성(조선족)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동남아 남성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 국제결혼에서 여성화 현상이 지배적인 것은 지역 간 성비 불균형에 따른 농촌 노총각 증가, 한국여성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차별적인 배우자 선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염 2004).

먼저 농촌지역 노총각 증가문제는 1960년대 정부가 추진한 불균등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남녀 차별적인 도시이동과 그에 따른 성비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면, 농촌여성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한 이후 도시지역에 정착한 반면, 농촌남성은 농업을 물려받아 정주 기반을 바탕으로 농촌에 계속해서 정착하게 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적 저발전으로 도시여성은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을 기피하였고, 그 결과 농촌지역 청년·장년층 남성인구의 비율이 여성인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1985년 농촌지역 전체 남성인구 가운데 25-50세 남성이 58%를 차지하여 같은 연령대 여성인구의 29.8%에 비해 1.95배 많았지만, 2000년 남녀인구 각각은 49.8%와 19.0%를 차지하여 그 차이가 2.62

배로 오히려 확대되었다(통계청 2005).

더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농촌지역 남성과 도시지역 저소득 남성이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렵게 하고 있다.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과거 관습적인 결혼보다 사회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선호하였고, 결혼에 의한 경력단절을 염려한 여성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혹은 늦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많은 여성이 배우자 선택에 있어 재산과 고소득을 중시하고 있다. 즉 여성은 남성 배우자의 결혼조건으로 재산 1억 이상, 연봉 3천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비에나레 2006. 7.20). 그리고 도시여성의 경우 배우자로서 농촌 남성을,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 남성은 지역사회에서 혹은 국내적으로 남성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 농촌남성의 국제결혼 선택은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내부적 모순’을 외적 자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저소득 가정의 일부 남성은 한국 사회에서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렵게 되자 그 탈출구로서 결혼비용이 비교적 적은 국제결혼을 선호하고 있다.⁵

⁵ 예를 들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데 약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제3세계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염 2004).

2.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적응 문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양정화 2005). 예를 들면, 조선족이나 혹은 특정 종교를 매개로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제외한 다른 여성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이 한 두 차례 만남으로 결혼하고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박재규, 이윤애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는 한국의 가부장제적 성문화 및 가족관계를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편, 남편이나 가족원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고립시켜 부부갈등이나 가족갈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결국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이혼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 583건에서 2004년 1,611건, 그리고 2005년 2,444건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6). 최근 국제결혼 가족의 이혼이 급증한 것은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결혼생활 부적응 현상이 표면화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혼실패에 따른 추방이나 불법체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생활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았다(박재규 외 2005; 박정현 2004; 안현정 2003; 임경혜 2004).

더욱이 '위장결혼'에 대한 가족원의 우려는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며, 그것은 곧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이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외부지원 네트워크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박재규 외 2005; 박영의 2003; 이윤애 2004).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은 국내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의 여성에 대한 강한 차별현상 때문에 국제결혼 가족의 남편이나 가족원은 이주여성이 외부세계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여 외부세계와 단절을 자초하여 결국 국내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 중에는 전통적 개념의 혼인보다 매매혼 성격을 띠고 있어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즉 한국 남성의 경우 국제결혼에 필요한 결혼비용, 선물비, 그리고 신부가족에 대한 재정지원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배우자를 평등관계로 인식하기보다 소유물로 인식하는 성향이 있다(김상임 2004; 최진영 2004). 이러한 결과는 인권억압으로 이어져 배우자 여성에 대한 폭력, 언어 폭언, 외출금지, 의처증으로 발전하면서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한국염 2004).⁶ 특히 결혼정보업체나 특정 종교단체가 추진하는 국제결혼

⁶ 이러한 사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상담기관에 호소하는 상담에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너는 내가 돈 주고 사 왔으니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나가라고 하거나 팔아 버리겠다는 말로 협박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은 부부간의 신뢰관계보다 금전관계나 혹은 허위관계에서 출발하고 있어 건강한 결혼생활을 방해하고 있다. 결혼이 신뢰보다 조건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부족하며, 여기에 위장결혼에 대한 우려와 불신으로 국내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새전북신문 2005. 1. 25; 조선일보 2004.10.6).

결혼정보업체나 한국남성의 경우 결혼을 성사시킬 목적에서 남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과대포장하거나 혹은 허위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⁷ 특히 농촌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 적령기를 넘겨 40대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여성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그 연령 차이가 심하다. 여기에 국제결혼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외국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2-3일에 불과하며, 맞선을 보고 결혼까지 5-6일로 매우 짧아 국제결혼이 처음부터 사랑보다는 조건이 중시되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생활 적응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새전북신문 2005. 1. 25; 조선닷컴 2005.3.21).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부적응 문제는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자녀의 한국어 습득문제를 비롯하여 지능발달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인 많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은

자녀교육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자녀문제를 비롯하여 가족갈등 등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에 대한 실태와 그것에 기초한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3. 자료 분석

3.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3>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검토한 것인데, 먼저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의 경우 5년 이하인 여성이 약 50%로 높게 나타났고, 6-9년 거주한 여성 또한 29.3%를 차지하였다. 반면 10년 이상 거주한 이주여성은 22.9%를 차지하였다. 이런 결과는 한국 사회 국제결혼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주여성의 현재 연령을 보면, 20대가 24.5%,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이 각각 29.6%와 25.7%를 차지하였고, 40대 이상은 20.2%를 차지하였다(평균연령은 34세). 그런데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은 평균 6.1년으로 나타나 결혼 당시의 평균 연령은 28.2세로 추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은 높은 편인데,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이 42.8%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전문대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또한 각각 19.1%와 17.6%를 차지하였다. 반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은 20.4%를 차지하였다.

⁷ 예를 들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대규모 영농인으로 포장하거나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를 건설업 운영자로, 트럭 야채상을 엔지니어로 속이기도 한다(조선닷컴 2005. 3. 21).

표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변 수	범주	빈도	비율	변 수	범주	빈도	비율
국내 거주기간 (평균=6.1)	2년 이하	144	23.7	연령 (평균 = 34.3세)	29세 이하	149	24.5
	3-5년	147	24.2		30-34세	180	29.6
	6-9년	178	29.3		35-39세	156	25.7
	10년 이상	139	22.9		40세 이상	123	20.2
	합 계	608	100.0		합 계	608	10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4	20.4	종교	종교 없음	121	20.6
	고등학교	260	42.8		개신교와 기독교	137	23.4
	전문대학	116	19.1		불교와 원불교	53	9.0
	대학교 이상	107	17.6		통일교	219	37.4
	합 계	607	100.0		기 타	56	9.6
배우자 만남	가족의 소개	76	12.5	출신 국적	합 계	586	100.0
	지인의 소개	131	21.5		일 본	145	24.2
	결혼정보업체 소개	56	9.2		조선족	209	34.9
	행정기관의 주선	19	3.1		베트남	32	5.3
	종교단체의 소개	305	50.2		필리핀	187	31.2
	직접 배우자 만남	14	2.3		기 타	26	4.3
	기 타	7	1.2		합 계	599	100.0
	합 계	608	100.0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결혼과정 분석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2%가 종교기관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났고, 지인이나 가족 소개에 의한 경우는 각각 21.5%와 12.5%,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이 9.2%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행정기관의 주선이나 결혼 당사자들의 만남이 각각 3.1%와 2.3%로 높지 않았다. 이주여성의 종교 실태에 의하면, 통일교가 37.4%, 개신교와 기독교 여성이 23.4%, 불교와 원불교 9.0%, 기타 종교 또한 9.6%를 차지하여 약 80%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었다. 반면 종교가 없는 여성은 20.6%를 차지하였다.

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 분포를 살펴보면, 조선족, 필리핀, 일본 국적의 이주여성이 각각 34.9%, 31.2%, 24.2%

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베트남 출신 여성이 5.3%를, 그리고 기타가 4.3%를 차지하였다.

3.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분석

3.2.1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실태

<표 4>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상태를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만족 수준이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 내용에 따라 그 결과도 매우 차별적이다.

먼저 농촌생활 내용 가운데 부부생활을 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40% 수준을 차지한 반면 일상생활이나 혹은 이웃관계의 경우 27.3%와 15.1%로 매우 적었다. 다른 한편, 만족과 불만족 비율을 비교하면, 부

표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 실태 분석

단위: %, 명

평가	국내생활 내용	부부생활		일상생활		이웃관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만족	40.6	247	27.3	166	15.1	92
	보통	38.3	233	41.9	255	27.6	168
	불만족	21.1	128	30.8	187	57.2	348
	합계	100.0	608	100.0	608	100.0	608

부생활의 경우 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40.6%로 불만족한 여성 21.1%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반면 일상생활이나 이웃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많았고, 전자의 경우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30.8%로 만족스럽게 평가한 사람 27.3%보다 약간 많았고, 후자의 경우는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57.2%로 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 15.1%보다 약 4배 정도 많았다. <표 5>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농촌생활 만족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먼저

표 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내생활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명

변수	범주	부부생활			X ² 검증	일상생활			X ² 검증	이웃관계			X ² 검증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거주기간	2년 미만	45.1	38.2	16.7	5.98	34.0	44.4	21.5	17.8**	9.7	20.8	69.4	18.1**	100(144)
	2-5년	35.4	43.5	21.1		30.6	43.5	25.9		15.6	24.5	59.9		100(147)
	6-9년	41.0	37.6	21.3		23.6	42.7	33.7		18.0	28.7	53.4		100(178)
	10년이상	41.0	33.8	25.2		21.6	36.7	41.7		16.5	36.7	46.8		100(139)
국적	일본	42.8	31.7	25.5	17.6*	22.1	40.0	37.9	36.8***	7.6	35.2	57.2	37.2***	100(145)
	필리핀	32.1	46.9	21.1		34.9	45.9	19.1		15.6	24.5	59.9		100(209)
	베트남	56.3	31.3	12.5		37.5	50.0	12.5		9.4	15.6	75.0		100(32)
	조선족	46.5	35.3	18.2		20.3	39.0	40.6		21.4	33.2	45.5		100(187)
	기타	42.3	42.3	15.4		38.5	46.2	15.4		3.8	7.7	88.5		100(26)
학력수준	중학이하	34.7	41.9	23.4	8.29	34.7	39.5	25.8	13.4*	11.3	29.8	58.9	5.26	100(124)
	고등학교	43.5	39.2	17.3		22.3	40.4	37.3		16.9	27.3	55.8		100(260)
	전문대학	35.3	37.9	26.7		25.9	45.7	28.4		19.0	27.6	53.4		100(116)
	대학이상	45.8	32.7	21.5		31.8	44.9	23.4		11.2	26.2	62.6		100(107)
연령	20대	45.0	35.6	19.5	3.40	30.9	43.6	25.5	6.21	12.8	18.8	68.5	16.2*	100(149)
	30-34세	39.4	41.1	19.4		27.8	43.3	28.9		13.9	28.3	57.8		100(180)
	35-39세	38.5	36.5	25.0		24.4	37.8	37.8		20.5	32.1	47.4		100(156)
	40대이상	39.8	39.8	20.3		26.0	43.1	30.9		13.0	31.7	55.3		100(123)
경제생활	부유하다	42.6	45.2	12.3	43.1***	49.0	40.0	11.0	98.9***	18.7	29.0	52.3	8.7+	100(155)
	보통이다	45.8	37.2	17.0		26.9	50.6	22.4		15.4	29.5	55.1		100(312)
	어렵다	27.0	33.3	39.7		4.3	24.8	70.9		10.6	22.0	67.4		100(141)
전체		40.6 (247)	38.3 (233)	21.2 (128)	-	27.3 (166)	41.9 (255)	30.8 (187)	-	15.1 (92)	27.6 (168)	57.2 (348)	-	100(608)

+ p<.06, * p<.05, ** p<.01, *** p<.001

부부생활의 경우 이주여성의 국적과 경제 생활 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부생활을 만족스럽게 평가한 사람 중에는 베트남과 조선족 여성이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보통 수준의 여성이 많은 반면,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사람 중에는 일본과 필리핀 국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의 경우 연령을 제외한 국내 거주기간, 국적, 학력, 경제생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상생활을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짧거나 베트남, 필리핀, 기타 국적 여성이, 그리고 중학교 이하 혹은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그리고 경제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끝으로 이웃관계의 경우는 응답자의 학력을 제외한 국내 거주기간, 국적, 연령, 그

리고 경제생활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이웃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여성들 중에는 국내에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조선족 및 필리핀 국적의 여성,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는 여성이 많은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짧거나 베트남 혹은 제3세계 국적의 여성, 나이가 젊은 여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이 많았다.

<표 6>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과정에 따라 농촌생활 적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결혼사유에 따라 부부생활이나 이웃 관계 만족이 차별적이었다. 예를 들면, 남편과의 사랑 관계에서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부부생활이나 이웃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반면, 가족지원 및 종교적 이유에서 결혼한 여성의 경우 불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남편의 정보는 부부생활 평가에서만 유

표 6. 응답자의 결혼 및 입국 준비와 국내생활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명

변수	범주	부부생활			X ² 검증	일상생활			X ² 검증	이웃관계			X ² 검증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결혼 이유	경제향상	44.3	40.9	14.8	21.9 **	23.5	44.3	32.2	13.5	14.8	30.9	54.4	16.6 *	100(149)
	가족지원	33.3	33.3	33.3		31.3	33.3	35.4		8.3	22.9	68.8		100(48)
	남편사랑	49.7	34.8	15.5		36.8	40.0	23.2		21.3	24.5	54.2		100(155)
	종교이유	35.2	36.9	27.9		23.5	44.1	32.4		8.9	29.6	61.5		100(179)
	기타	32.5	46.8	20.8		22.1	41.6	36.4		22.1	26.0	51.9		100(77)
남편 정보	정확	50.3	32.7	17.1	43.2 ***	29.5	39.0	31.5	5.15	16.2	30.1	53.8	4.43	100(346)
	보통	30.5	52.5	16.9		25.4	49.2	25.4		15.3	24.6	60.2		100(118)
	부정확	25.7	40.3	34.0		23.6	43.1	33.3		12.5	24.3	63.2		100(144)
입국 당시 한글 이해	높음	48.7	35.5	15.8	12.5 *	23.7	37.5	38.8	9.25	24.3	30.3	45.4	26.1 ***	100(152)
	중간	41.6	41.6	16.8		32.9	42.2	24.9		17.9	28.3	53.8		100(173)
	부족	35.7	37.8	26.5		25.8	44.2	30.0		8.5	25.8	65.7		100(283)
전 체		40.6	38.3	21.2	-	27.3	41.9	30.8	-	15.1	27.6	57.2	-	100(608)

* p<.05, ** p<.01, *** p<.001

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편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정확한 경우 부부생활을 만족스럽게 평가한 반면 반대의 경우 불만족스럽게 평가하는 이주여성이 많았다. 그리고 국내 입국 당시 이주여성의 한국어 이해 정도에 따라 부부생활이나 이웃 관계 평가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입국 당시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부부생활과 이웃관계에 만족한 반면,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낮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비교적 일치하고 있다(윤형숙 2004).

그리고 <표 7>은 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의 지원 정도에 따라 국내생활 만족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외부교육이나 모임 참여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와 본국 가족에 대한 물질적 지원 정도에 따라 국내생활 적응은

차별적이었다. 즉, 외부교육이나 외부모임 참여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적극 지지를 받고 있거나 혹은 본국의 가족에게 물질적 지원을 자주 해 주고 있는 가정의 이주여성일수록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부부생활과 일상생활, 이웃 관계 모두에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에 가족의 물질적·정신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안현정 2004).

<표 8>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노동과 가사노동에 따라 농촌생활 적응 정도를 분석한 것인데, 농촌생활 내용에 따라 평가 결과에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먼저 이주여성의 부부생활 평가에서 노동시간을 제외한 가사노동시간, 하는 일의 어려움 정도,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시간이 4-6시간 정도,

표 7. 응답자 가족의 지원과 국내생활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명

변수	범주	부부생활			X ² 검증	일상생활			X ² 검증	이웃관계			X ² 검증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교육 참여 가족 지지	적극	57.3	29.6	13.1	77.1 ***	32.7	37.2	30.2	11.4 *	17.1	33.7	49.2	12.3 *	100(199)
	보통	38.7	44.0	17.3		27.0	45.3	27.7		14.3	27.3	58.3		100(300)
	부족	15.6	38.5	45.9		18.3	41.3	40.4		13.8	17.4	68.8		100(109)
모임 참여 가족 지지	적극	56.7	32.9	10.4	71.6 ***	33.3	39.0	27.7	15.0 **	17.7	35.1	47.2	18.8 ***	100(231)
	보통	37.1	43.0	19.8		27.8	43.9	28.3		15.6	24.1	60.3		100(237)
	부족	20.0	39.3	40.7		16.4	43.6	40.0		10.0	21.4	68.6		100(140)
본국 가족 물질 지원	없음	31.3	44.5	24.4	14.6 *	28.6	38.7	32.8	18.8 **	20.2	21.8	58.0	8.28	100(119)
	1-2회	37.2	40.1	22.7		22.2	38.2	39.6		12.6	25.6	61.8		100(207)
	3-4회	46.2	31.9	22.0		24.2	47.3	28.6		15.4	28.6	56.0		100(91)
	5회 이상	47.6	35.6	16.8		33.5	45.5	20.9		14.7	33.0	52.4		100(191)
전 체		40.6	38.3	21.2	-	27.3	41.9	30.8	-	15.1	27.6	57.2	-	100(608)

* p<.05, ** p<.01, *** p<.001

표 8. 응답자의 노동과 가사노동에 따른 국내생활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명

변수	범주	부부생활			X ² 검증	일상생활			X ² 검증	이웃관계			X ² 검증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하루 노동 시간	없음	38.6	41.1	20.4	5.05	29.5	44.2	26.3	9.64*	12.5	24.8	62.7	8.68	100(319)
	8시간 이내	46.1	34.2	19.7		21.8	42.5	35.8		17.6	31.6	50.8		100(193)
	9시간 이상	36.5	37.5	26.0		31.3	33.3	35.4		18.8	29.2	52.1		100(96)
가사 노동 시간	없음	32.8	45.4	21.9	19.3 **	27.9	44.3	27.9	6.90	14.2	31.7	54.1	15.4 *	100(183)
	1-3시간	47.6	33.1	19.3		31.0	42.1	26.9		21.4	31.0	47.6		100(145)
	4-6시간	48.9	33.9	17.2		22.8	39.4	37.8		13.9	21.1	65.0		100(180)
	7시간 이상	30.0	41.0	29.0		29.0	42.0	29.0		10.0	27.0	63.0		100(100)
일의 힘든 정도	매우 힘들다	34.3	32.4	33.3	31.8 ***	18.6	32.4	49.0	48.6 ***	15.7	33.3	51.0	10.5	100(102)
	약간 힘들다	31.0	44.6	24.4		22.0	44.0	33.9		18.5	30.4	51.2		100(168)
	보통	42.8	38.4	18.9		23.3	47.2	29.6		12.6	25.2	62.3		100(159)
	힘들지 않다	47.6	38.5	14.0		36.4	44.1	19.6		13.3	26.6	60.1		100(143)
	전혀 힘들지 않다	66.7	25.0	8.3		58.3	27.8	13.9		16.7	13.9	69.4		100(36)
남편 가사 참여	아주 만족	59.5	29.7	10.8	70.5 ***	52.7	36.5	10.8	53.3 ***	17.6	20.3	62.2	5.26	100(74)
	약간 만족	47.7	40.9	11.4		30.2	43.8	26.0		14.2	29.5	56.2		100(281)
	다소 불만	30.6	39.4	30.0		16.1	43.9	40.0		15.0	30.6	54.4		100(180)
	아주 불만	19.2	34.2	46.6		17.8	35.6	46.6		16.4	20.5	63.0		100(73)
전 체		40.6	38.3	21.2	-	27.3	41.9	30.8	-	15.1	27.6	57.2	-	100(608)

* p<.05, ** p<.01, *** p<.001

하는 일이 어렵지 않거나, 혹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만족하는 이주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부부생활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주여성의 일상생활 평가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 하는 일의 어려움 정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정도에 따라 차별적이었다. 즉 일상생활을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현재 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여성이나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혹은 하는 일이 힘들다고 평가하는 경우 혹은 남

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 관계 평가는 응답자의 가사노동 시간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노동시간이나 혹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어려움,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3.2.2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회귀 분석

<표 9>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

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R^2)은 이웃 관계가 15%로 다소 낮은 것을 제외하면 (Adjusted $R^2=.154$), 부부생활의 경우 33%, 일상생활의 경우 23%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생활이나 일상생활의 경우 이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변수에 의한 설명력이 높아 이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하게 될 지원 방안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부부생활 적응을 분석한 모델1에 의하면, 여성의 국적, 교육수준, 경제생활에 따라 부부생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조선족 여성에 비해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성의 부부생활이 부정적인 반면 일본이나 제3세계 여성의 부부생활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필리핀 여성의 경우만 유의미하였다($\beta=-.208, p<.001$).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재의 경제생활에 여유가 있을수록 부부생활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주여성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통제할 경우 국적은 부부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교육수준이나 경제생활은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경제생활이 부유할수록 부부 관계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남편과의 결혼사유, 남편정보의 정확성, 한국에 입국할 당시 한국어 실력, 외부 교육 및 모임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등도 부부생활에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결혼이 종교적 이유에 비해 경제적 향상 혹은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부부생활에 보다 만족하게 나타났고, 남편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았거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부의 교육이나 모임참여에 가족의 지지를 받는,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일수록 부부생활에 긍정적이었다.

다음으로 이주여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델1에 의하면, 국적과 경제생활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조선족 여성에 비해 다른 국적의 여성이 부부생활에 만족하였고, 그 차이는 일본이나 필리핀 국적 여성의 경우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가정경제생활 수준이 높은 여성 또한 일상생활에 보다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주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한 모델2에 의하면, 국적과 경제생활 변수는 여전히 일상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필리핀 국적 여성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났다($\beta=.167$ 에서 $\beta=.211$ 로 높아짐), 베트남 국적 여성 또한 조선족 여성에 비해 일상생활에 만족하였고, 그 차이도 유의미하였다($\beta=.095, p<.05$). 반면 경제생활의 영향력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영향력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279, p<.001$). 그 밖에도 남편의 정보,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어려움,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따라 일상생활 또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즉 결혼 당시 남편의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여성일수록,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일수록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를 비롯하여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고 평가한 이주 여성의 경우 일상생활에 불만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 관계 적응에 관한 모델1에 의하면, 국적과 거주

기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조선족 여성에 비해 다른 국적 여성은 이웃관계가 좋지 않게 나타났고, 그 차이도 모두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여성일수록 이웃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변수가 사용된 모델 2에 의하면, 국적의 영향은 크게 약화되어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조선족 여성에 비해 다른 국적

표 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부부생활		일상생활		이웃관계	
	모델1 B	모델2 B	모델1 B	모델2 B	모델1 B	모델2 B
상 수	13.26***	5.45**	13.28***	8.84**	11.72***	10.31**8
일본	.034 .003	.28 .022	2.24 .183***	1.39 .113	-1.41 -.200***	-.44 -.063
필리핀	-2.42 -.208***	-.93 -.080	1.84 .167**	2.32 .211**	-.81 -.129*	-.17 -.027
베트남	-.25 -.010	1.40 .057	1.57 .067	2.21 .095*	-1.64 -.123**	-.58 -.044
기타	.31 .011	.51 .019	1.15 .059	1.40 .054	-2.11 -.143***	-1.48 -.100*
조선족	-	-	-	-	-	-
거주기간	.02 .009	.12 .060	-.08 -.046	-.02 -.013	.17 .175***	.13 .135***
교육수준	.80 .143**	.70 .126**	.22 .041	.30 .056	.16 .053	.14 .047
연령	-.04 -.05	.04 .057	.05 .067	.04 .057	.02 .052	.02 .043
경제생활	.92 .211***	.58 .132**	1.38 .335***	1.15 .279***	.16 .067	.11 .045
경제향상		1.42 .111*		-.80 -.066		.33 .047
가족지원		-.70 -.033		-.26 -.013		-.51 -.044
남편사랑		1.76 .139**		-.48 -.040		.81 .12*
기타		.30 .018		-.40 -.025		.63 .069
종교적 원인		-		-		-
남편정보		.17 .146***		.09 .081+		.02 .03
한국어능력		.20 .104*		.15 .087		.15 .15**
교육참여		.48 .131**		.35 .099		-.12 -.058
모임참여		.39 .155**		.08 .035		.29 .210**
물질적 지원		.22 .044		.25 .053		.24 .089*
일의 어려움		-.28 -.059		-.53 -.116**		-.27 -.11**
남편가사참여		1.63 .249***		1.00 .161***		.06 .017
Adjusted R Square	.055	.325	.130	.233	.087	.154

+ p<.06, * p<.05, ** p<.01, *** p<.001

의 여성 모두 이웃관계가 부정적이었지만 그 차이는 기타 국적 여성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국내 거주기간은 여전히 유의미하여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웃관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나 외부 모임참석에 대한 가족의 지지, 본국 가정에 대한 물질적 지원, 그리고 하는 일의 어려움 정도 등도 이웃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국내에 입국 당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여성일수록, 특히 외부 모임참여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적극 받은 이주여성일수록, 본국 가정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가정의 이주여성의 경우 이웃관계 또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힘든 경우 이웃관계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결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에 관해서 이 연구가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여성의 국적과 관련해서 조선족 여성에 비해 필리핀이나 베트남 국적 여성이 일상생활에 만족하였지만, 국내 거주기간은 이웃관계에서만 유의미하였을 뿐 부부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웃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하겠지만 부부생활이나 일상생활은 결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함

의는 국제결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즉 결혼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정보가 정확할수록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국내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국제결혼이 종교적 이유보다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한 경우 부부생활 또한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도 국내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외국교육이나 모임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의 경우 부부생활이나 이웃관계에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생활 수준에 따라 국내생활 적응도 차이를 보이는데, 가정경제생활이 어려울수록 부부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불만족하였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힘들거나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없는 경우 농촌생활 적응 또한 부정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전 프로그램 모색과 함께 남편의 정확한 정보가 이주여성 배우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여성이 국내에 입국한 직후 최소 2~3개월 이내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약 6개월 교육과정)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규정을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무규정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 관점에서도 매우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이후 남편이나 가족원의 제약으로 가정 밖에 노출될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한 노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어 교육 참여는 가정 밖의 생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외부세계 노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 '잠재적' 가정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국내생활 적응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정보업체나 혹은 기관을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남성이나 여성의 정보가 정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하거나 감독하며, 특히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과중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스스로 자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성 또한 자신의 정보를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에 적합한 선택을 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에 있어 가족의 지지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국제결혼을 했거나 하려는 한국남성을 대상으로 부부공동체적 삶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 혼자만 참여하는 교육이나 행사 프로그램의 경우 가족의 반대로 인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 여성과 그 가족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에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족참여

교육과정이나 남편 대상 교육에서 배우자 국가의 문화나 관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사노동참여를 유도하는 실습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부는 국제결혼 이민자여성 가운데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 국적 취득 이전이라도 최저생계비, 의료 서비스 등 사회보장 지원을 결정)을 비롯하여 출산농가도우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4. 28. “보도자료: 다문화 가정 품어 안은 교육지원 대책.”
- 김민정. 2004. “한국의 이중 문화가정: 관심 문화적 차이 극복.”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공적 정착 지원정책 토론회』.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김상임. 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 인권센터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이주여성인권센터.
- 설동훈. 2003.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공적 정착 지원정책.”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공적 정착 지원정책 토론회.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박영의. 2003.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 여성의 인권.” 충남 거주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 모색 워크숍.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박재규.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 방안” 2005년 한국 사회학

- 하계 학술발표문.
- _____. 2003. 『전북지역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욕구 연구』.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박재규, 이윤애. 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 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북발전연구원.
- 박현정. 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안정현. 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 여성가족부. 2006. 4. 26. “보도자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현 등 (역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pp. 321-349.
- 이금연. 2001. “국제결혼 가정의 현실과 문제.”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와 대책』. 이주여성인권연대.
- _____. 2003. “국제결혼과 그 이해: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 이윤애. 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 지원 방안』.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이혜경. 2005.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포럼』. 자료집. 아시아 이주여성포럼.
- 임경혜. 2003.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연구.” 대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전라북도. 2003. 『전북여성통계연보』.
- 최진영. 2004.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삶 들여다보기, 내다보기.” <http://www.wmigrant.org> 참조
- 통계청. 2006. 보도자료.
- _____. 2005. 『인구동태조사』.
- 한국염.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이주여성인권센터.
- Castle, S. and Mark J. Miller. 1998.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Guilford Press: New York.
- Kofman, Eleonore. 1999. “Female ‘Birds of Passage’ a Decade Later: Gender and Immi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3(2): 269-299.

<p>■ 원고 접수일 : 2006년 5월 29일 원고 심사일 : 2006년 6월 7일 심사 완료일 : 2006년 9월 9일</p>
--